

1945,6년 동경성 일대의 서사지리

—『포효하는 목단강』(윤일산)을 중심으로—

이승수* · 황인건**

【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설 『포효하는 목단강』을 텍스트로 삼아, 1945,6년 중국 흑룡강성 寧安市 渤海鎮(소설에서는 東京城) 일대 지리 공간의 역사 상황과 조선인의 삶을 조명한 글이다. 본 논의에 앞서 ① 윤일산의 행적과 작품 세계, ② 『포효하는 목단강』의 간행과 연구 상황, ③ 1930년대 조선인의 목단강 이주와 1945,6년 동경성 일대의 역사 정황, 세 가지를 예비 검토했다. 5절과 6절은 본론에 해당한다. 인물의 성격과 갈등은 크게 네 개의 유형과 구도로 파악하였다.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실존인물이거나,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전형성이 강하다. 작가는 스스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이 소설을 창작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서사공간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중요한 곳들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전개되는 몇몇 조선인 집거촌이다. 제목에는 ‘목단강’이 드러나 있고, 서사의 중심 장소는 동경성(지금의 발해진)이며, 여러 전투는 철로 연변의 마을들에서 벌어진다. 목단강 · 동경성 · 철로는 각각 이 지역의 자연 · 역사(고대) · 조선인 이주(근대)를 표상한다.

: , , , , , , , ,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차례

1. 서설
 2. 작품 내용과 연구 현황
 3. 윤일산의 내력과 작가의식
 4. 역사 배경과 1945,6년 동경성 일대의 정황
 5. 인물의 전형과 구도
 6. 서사공간의 지리 정황
 7. 결어
-

1. 서설

이 논문은 소설 『포효하는 목단강』을 텍스트로 삼아, 1945,6년 중국 흑룡강성 寧安市 渤海鎮(소설에서는 東京城) 일대 지리 공간의 역사 상황과 조선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아래 두 가지 의문 위에서 출발한다.

첫째, 이 지역은 수많은 한반도 출신의 流移民이 살고 있고, 그들은 100년 가까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고유문화를 지켜왔으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어로 신문과 잡지를 간행해왔으며, 한국어 문학을 짓고 향유해왔다. 원인과 과정 여하를 떠나 이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그들은 우리인가 남들인가? 그들의 생활 현장은 안인가 밖인가? 그들의 문학작품은 한국문학인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학인가? 이 글은 그 모든 것을 한국문학의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세상에 자명한 이치와 당연한 법칙은 없다. 모든 경계와 의미는 인식과 명명의 산물이다. 한국문학의 범주는 시야와 해석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둘째, 북방 인식의 재고에 대한 필요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대’와 ‘북방’

은 서로를 연상시키거나 짝으로 묶여서 허약하고 빈곤한 현실의 기력을 보충하는, 하지만 체질을 개선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지는 못하고 순간의 활력을 일으키는 일종의 각성제이다. ‘고대의 북방’은 근대 이후 외세의 위협 아래 급조된 관념이다. 북방이라는 지리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 기반은 매우 빈곤하고 허약하며, 이를 포장하는 것은 감상적 동일성, 낭만적 낙관성, 관념적 자위성 등이다. 하지만 한반도보다 크고 한국사만큼이나 유구한 세월을 품은 그곳을 한두 단어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의 일정 시기와 지역,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과 일어난 사건들을 논점으로 잡아야만, 그 지리공간이 의미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① 재중 조선인(족)에 의해 순 한글로 지어졌고, ② 1945년 8월 해방 이후 약 1년의 시기 발해진을 중심으로 반경 100리 이내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며, ③ 역사 사건을 토대로 조선인 사회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소설 『포효하는 목단강』은 위 두 질문의 출발점이자 답을 찾아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글의 텍스트는 1989년 간행된 동광출판사 본이다. 연변출판사 간행본과는 표기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차후 보완하기로 한다.

2. 작품 내용과 연구 현황

『포효하는 목단강』의 서사는, 강제 징집되어 전투에 투입된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인 장교들을 죽이고 탈출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패주하던 국민당 지지 토비 사령관 마희산(馬喜山) 부대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서사 시간은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1년간이다. 서사 공간은 지금의 발해진(渤海鎮, 중국 黑龍江省 牡丹江市

寧安市)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리 안쪽의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주요 사건들이 펼쳐지는 곳은 조선인 집거촌이다.

역사적 배경은 해방 이후 혼란한 가운데, 동북 지역을 차지하려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힘겨루기, 즉 중국의 내전 상황이다. 서사의 큰 구도는 공산당을 지지하는(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조선인 중심의 무장 조직과 국민당 편에 선 한족 중심 군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다. 과거 행적을 따지면 여기에는 ‘동북항일연군 / 친일부역배’의 대립도 내포되어 있다. 소설 전편을 관류하는 갈등의 원인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인데, 두 가지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족 모순을 계급 동일성 속에 무화시키려는 세력과 민족모순을 조장하여 계급 모순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대결 끝에, 전자가 승리하여 민족모순은 소멸되고 계급동일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서사의 줄기이다.

『포효하는 목단강』에 대한 연구는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86년 중국에서 간행되었던 이 소설을 1989년 한국에서 다시 간행하면서, 말미에 붙인 임현영의 해설이다. 임현영은 이 작품을 “연변 조선족이 낳은 현대판 무협지풍의 빨치산 혁명소설”로 규정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게 마련이었던 탄압과 착취와 편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혁명의 불길로 승화하여 새 시대로 접어드는가를 『수호지』 식 미학관으로 묘파해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섬세한 심리보다는 비장한 영웅주의적 행동 중심의 서술을 주목하여 평가한 것이다. 간략한 인상 비평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작품을 소개하고 그 굵직한 특징들을 처음으로 잡아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오랜 공백 끝에 최근에 와서야, 조선족문학사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제출되기 시작했다. 서령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조선족문학에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를 제제로 한 장편소설이 대거 출현한 현상에 주목한 뒤, 1950년대 대표 작품으로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1980년대 대

표 작품으로 『포효하는 목단강』을 선정해 분석했다.¹⁾ 이에 따르면 『포효하는 목단강』의 경우 후대에 쓰였으나 ‘유사 건국 서사 다시 쓰기’로서 김학철 시대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이전 시기 작품들과 달리 조선족에 대한 한족의 편견과 오해가 서사적으로 형상화되긴 하지만, 이는 결국 조선족 주인공의 사상 교육으로 해결되고 두 민족은 ‘한 계급 형제’로 화합한다. 또 주인공의 항일 투쟁과 해방 투쟁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서 이루어진다. 80년대에 이렇게 조선족문학의 중국화가 복창된 원인은 1960년대부터 시행된 소수민족에 대한 급진적 동화정책이 문화혁명 이후에도 잔존하며 작가들을 정치적으로 속박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혜영은 이러한 견해에 문제를 제기했다.²⁾ 그는 1980년대 혁명 서사가 문화혁명 앞에 또 다시 위기에 처했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재건하려는 문학적 대응이었다고 보았다. 1960, 70년대 문화혁명 시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들이 느꼈던 배신감은 조선족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족 사회에서는 중국 경내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역사에 편입되고 중국 국민의 자격을 획득해야하는, 즉 국민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 절박하게 대두했다. 이러한 역사 정리, 편입 작업은 현대 중국 건국 초 이미 한 차례 진행되어 1950, 60년대의 혁명서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의 작업이 지녔던 한계가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드러났고 이에 다시 유사한, 그러면서도 차별점이 있는 형태의 문학이 출현한 것이라 했다.

1) 서령, 『중국 조선족문학의 ‘중국화’ 문제- 김학철과 윤일산의 전쟁제제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 이혜영, 「기억과 재현: 1980년대 중국 조선족 혁명서사 연구-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 2017 통일인문학세계포럼(건국대학교-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공동주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어제와 오늘”, 2017년 10월 20일, 158~174쪽.

그에 따르면 이 소설은 중국 동북지역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민족 갈등이라는 은폐된 기억을 호출·고백·재구성함으로써 두 민족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일제는 강제 이민을 통해 토착 중국인이나 재만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아 일본 개척단과 신규 조선인 이주민에게 분배했다. 이에 따라 농촌 사회에서는 한족의 땅을 빼앗은 가해자인 조선족과 피해자인 토착 한족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했다. 기존 남북한 및 조선족문학은 이러한 기억을 철저히 은폐하고 두 민족을 '인민'의 범주로 수렴하며 단결과 우애의 관계로만 부각시켰다. 반면 윤일산은 이를 직시, 고백하고 나아가 갈등의 근원에 일제의 토지 수용령과 두 민족 간의 반목을 조장하려는 이간질이 있었음을 명시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소설은 동북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통해 조선족을 적극적인 혁명의 주체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을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수사했던 기존 역사 및 서사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다. 동북 지역은 만주사변 이후 14년 간 일제의 식민치하에 있었다. 소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북지역 한족이 혁명의 차원에서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족 인물들은 동북항일연군 활동 및 이들과의 연계가 표상하듯,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공산당의 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 관내 지역 출신인 공산당과 팔로군이 낙후된 동북지역 한족 사이에서 기반을 잡기 어려운 문제점은 동북지역 조선족의 투쟁과 기여를 통해 극복된다. 『포효하는 목단강』을 위시로 한 1980년대 혁명서사는 조선족이 떳떳하게 역사를 마주하고 국민 정체성을 재구하고자 했던 효과적인 시도였다는 것이다.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념, 한반도, 민족, 문화형식 중심의 편협한 시야를 극복하고, 거시적인 맥락과 입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역사적 좌표와 의미를 밝혀내고 있어, 그 질적 성

과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윤일산의 내력과 작가의식

작가에 대해서는 그간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1989년 이 소설을 간행한 동광출판사 본에는 간단한 약력만 소개되어 있다. 해제에서도 작가에 대한 별반 소개가 없다. 이후 국내 학계에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작가는 망각되었다. 최근에 보고된 두 편의 관련 논문에서도 작가에 대해서는 1989년 소개된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논자는 작가의 근황을 수소문하던 과정에서 그의 자녀 중 하나인 윤해연 교수(남경대 한국어과)를 알았고, 그를 통해 부친에 대한 회고록인 「청빈한 선비의 영원한 표상」을 입수하여 그 생애의 대개를 파악하게 되었다.³⁾ 윤해연 교수는 이 논문의 학회 발표에 즈음하여,⁴⁾ 각각 대학노트 120쪽과 30쪽 분량의 『포효하는 목단강』 취재노트와 창작구상노트 사진 파일 및 상세한 작가 약력을 보내주었는데, 여기에 작가와 작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있다.⁵⁾

이에 따르면 윤일산의 본적은 함경북도 성진군(지금의 김책시)이다. 1943년 龍井에서 태어나 2005년 장춘에서 타계했다. 흑룡강성 密山에서 조

3) 이 회고록은 2016년 작성되었으며, 2017년 연변에서 간행된 『백성의 아들』(윤일산)에 수록된 것이다.

4) 이 논문은 2018년 9월 8일 열상고전학회에서 개최한 ‘신류의 나선정별 승리 3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발표하였다. 토론을 맡아준 김일환 선생(동국대)으로부터 여러 도움말을 들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5) 두 노트의 메모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약 7대3 비율로 작성되었다. 취재노트의 내용 중에는 구술 채록 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45년 이후 이 지역의 이른바 ‘혁명전쟁’ 관련기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 구술 내용은 중요한 1차 사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주제와 관련되는 일부 내용만 소개하고, 그 역사 및 문학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한다.

선죽중학교를 다녔으며, 1960년~1963에는 북한으로 가서 김책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1964년 1월부터 1969년 2월까지 발해진 江西村으로 下放되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의 馬河村에서 조선족소학교 교사를 하기도 했다. 발해진 소속으로 목단강을 사이에 두고 響水村과 마주 보고 있는 江西村은 『포효하는 목단강』에서 여러 인물들의 고향으로 설정된 곳이며, 마하촌은 주요 전투의 현장이다. 1964년부터 연변대학교 函授部(일종의 방송통신대) 朝文系에 입학하였는데, 1966년 문화대혁명 기간에 합수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1983년에야 졸업할 수 있었다. 1971년 이후 18년 동안 臥龍(지금의 臥龍朝鮮族鄉)의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0년부터 길림성 圖們市 TV방송국에서 일하다가 2001년 퇴임했다.

윤일산의 작가 이력은 1979년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부 교재 『文選』에 단편소설 「당원」이 실리면서 시작된다. 취재 노트에 따르면, 윤일산은 1986년 『포효하는 목단강』이 출판되기 전까지 「당원」을 포함한 10편의 단편소설과 3편의 장편소설, 그리고 창작 관련 산문 서너 편을 발표했다. 그 중 1981년 연변출판사에서 간행한 첫 장편소설 『어둠을 뚫고』는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펼쳐진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이 주요 내용으로, 서사 배경과 내용으로 보아 『포효하는 목단강』과 자매편이 된다. 하지만 취재노트에는 서지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작품들의 발표 시기와 매체를 찾아내는 것이 숙제이다.⁶⁾ 2003년 잡지 『장백산』에 「백성의 아들」을 연재했고, 이 글들은 2017년 연변대학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윤일산의 창작 활동을 적극 후원했던 영안현의 민족 지도자 리

6) 취재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창작정황’이라는 이름하에 그때(1985년 즈음)까지의 창작품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중 장편소설 항목에는 “창작자들의 신성한 직책”이라는 제명 옆에 ‘1983.1.1 흑룡강 조문관’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출간 정황에 대한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는 출간 관련 정보가 없어, 이 작품들의 발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동민의 전기이다. 윤일산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작품들을 찾아 내어 그 연보를 만드는 일이 요구된다.

논자는 2018년 8월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글 잡지 『은하수』 1982년 10호(흑룡강성민족출판사)에 실린 윤일산의 글 『나의 창작 체득』을 구하였다.⁷⁾ 이 글은 『어둠을 뚫고』 독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어둠을 뚫고』는 물론 『포효하는 목단강』의 창작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해영은 1980년대 조선족 목단에서 나온 혁명 서사를 두고, “조선족이 떳떳하게 역사를 마주하고 국민 정체성을 재구하고자 했던 효과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윤일산의 작가 의식과 대차 없이 부합된다.

윤일산이 밝힌 창작 동기는 대략 이러하다. 1930년대 조선족 인민들은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중화민족의 해방사업을 위해 마멸할 수 없는 위대한 공훈을 세웠으며, 이는 당시 사회주의 조국의 어엿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毛澤東과 周恩來를 비롯한 신중국 지도자들의 확인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⁸⁾ 그런데 중국에서 조선족이 갖는 역사적 정당성이 林彪와 4인방에 의해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자칫하면 조선족 항일투사들의 업적이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선조들의 항일투쟁을 그려내, 사회주의 중국에서 조선족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능동적인 선도를 고무하려는 예술적 충동

7) 자료 제공자는 목단강시에 거주하는 주현(80세)이다. 주 선생은 함경도 원산 출신으로, 아홉 살이던 1947년 아버지 목말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던 정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목단강시 민족사무위원회 일을 맡아, 목단강 지역의 조선족 역사에 밝다. 민족 정체성이 강하며, 외부 동일자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건강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8) “중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인 열사들의 선혈이 묻어있다.” 목단강 지역의 70대 이상 고로들 사이에 전해지는 毛澤東의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의 문헌 근거는 확실치 않다.

과 역사적 소명의식이 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⁹⁾

작품의 역사성과 허구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놓았다. 그는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실제 사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또 주요 사건들은, 항일연군 5군의 지하교통원으로 있었던 노혁명이 강봉한의 경력에서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징은 『포효하는 목단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항일연군 지하교통원 출신 노혁명이 강봉한은, 『포효하는 목단강』에서는 강찬혁으로 다시 등장한다. 시공간 배경과 사건,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역사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구 인물들조차도 대부분 실존인물들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취재노트가 잘 보여준다.¹⁰⁾ 물론 그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세부 구성과 묘사는 완전히 허구임을 밝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윤일산은 또 자신의 창작이 사회역사적 사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보면 윤일산의 소설은, 오랜 역사연의의 전통 위에 들어선 사실주의 리얼리즘 서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9) 1980년대 적어도 영안시 조선족 사회에서는, 조선족의 역사를 정리하여 자기 위상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강수봉,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1, 2), 『은하수』, 1985년 제 1기, 2기; 丁乙權, 『寧安縣朝鮮族人的剿匪戰鬪』, 『寧安縣少數民族人物志』(寧安縣民族事務委員會, 1987) 등의 글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 초반 여러 해에 걸쳐 간행된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8권은 그러한 여러 노력들의 총화로 보인다. 윤일산의 소설 창작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0) 소설 초반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 일본군에서 탈출한 강서 출신 박강 등의 이야기는 박최동의 구술에서, 민주대동맹과 민회의 갈등 및 '박도깨비'의 인물 형상은 장두현의 구술에서 조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부친이 경찰서의 강요에 의해 조선인에 강제로 땅을 팔고, 그 뒤로 조선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마희산 부대에 들어간 경찰 출신 오완린의 모델이 李萬國임을 알 수 있다. 이만국 부자는 해방 무렵 뚝거우(東溝)에 살고 있었는데, 소설에서도 오완린이 살았던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东北民主联军牡丹江军区第十四团三营的某朝鲜族排指战员

동북연군 목단강군구 14탄 3영의 조선족 장병들

논자는 2017년 12월, 2018년 8월 두 차례 근로촌을 방문하여 윤일산이 마을 소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사실, 지금은 밭으로 변한 소학교 터, 그리고 윤일산의 집터를 확인했다.¹¹⁾ 근로촌의 원래 이름은 孤家子村으로, 지금도 조선족 집거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1가구 제외), 『포효하는 목단강』의 주요 무대인 아마허즈, 마창과 가깝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윤일산의 소설 창작에 대한 짚막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와룡현 莢山村(소설 속 마창)의 김광집 촌장(54세)은, 소학교 교장을 지낸 사촌형 김윤집이 윤일산과 함께 소설을 쓴다며 의기투합했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또 흑룡강성민족출판사에서 퇴임한 주동률(81세) 선생은 윤일산의 창작 정황에 대해 들려주기로 했는데, 일정이 어긋나 인터뷰에 실패했다. 윤일산의 작

11)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며, 深川에서 살다가 최근 귀향한 沈燕(여, 65세)은 윤일산이 담임 교사였으며, 그가 살던 집터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가 면모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와 구술 증언이 더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4. 역사 배경과 1945,6년 동경성 일대의 정황

『포효하는 목단강』에서 목단강은 길림성 敦化에서 발원하여 鏡泊湖를 거치고 海浪河를 받아들여 북쪽으로 흘러 松花江에 합류하는 강 이름이자, 도시의 명칭이다. 구불구불한 강을 뜻하는 만주어의 음차이다. 소설에서는 물론 전자를 지칭한다. 목단강시는 흑룡강의 남단에 위치해 있다.¹²⁾ 寧安은 목단강시에 소속된 縣級 시(1993년 승격)이다. 『포효하는 목단강』의 주요 서사 공간은 모두 寧安에 소속된 고을들이다.

寧安(크게 보면 목단강시 일대)은 한국학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지리 공간이다. 기록으로 특정 기술하기 어려운 상고시대(부여와 고구려 등)는 차치하더라도, 渤海鎮은 161년간(755~784, 794~926) 발해의 수도로 上京 龍泉府가 있던 곳이다. 926년 발해가 멸망하고, 928년 발해 유민들의 遼陽 이주 이후 이곳은 역사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소설에서 서사의 중추 공간으로 설정된 東京城이 바로 지금의 渤海鎮이다.¹³⁾ 청나라 초기 이 지역은 寧古塔으로 불렸으며, 寧古塔將軍은 지금의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寧古塔은 조선의 전략적 요지로 간주되었으며, 會寧開市를 통해 조선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12) ‘牧丹江’의 어원과 도시 기원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논문 참조 黃錫惠, 『牧丹江考釋』, 『黑龍江史志』(1996), 43,4쪽; 商燕鳴, 『牧丹江市城史紀元考』, 『黑龍江史志』(2006), 38~40쪽.

13) 1928년부터 東京城鎮으로 불렸으며, 이 명칭은 1961년까지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 발해진과 東京城鎮이 분리되었는데, 동경성진은 동경성 기차역 일대이다. 두 곳의 거리는 약 4km 정도로 매우 가까운 편이다.

1658년 신류가 지휘하는 조선군대가 오간 것도 이 지역의 한 줄 역사이다.

인적이 드문 산야에 불과했던 이 지역이 도시로 성장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1903년 中東(東淸)鐵路 상에 목단강역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1937년 圖佳線(圖們-佳木斯) 철로가 개통되고, 이 노선이 중동선과 교차되면서 이곳은 일약 물류와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30년대 후반 목단강시는 관동군의 전략적 요지였으며, 牧丹江省 · 間島省 · 東安省을 총괄하는 東滿總省의 소재지였다.¹⁴⁾ 이 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는 철도 개통과 관련이 깊다. 거대한 분지 평야로 수량이 풍부하여 논농사에 적합한 지리 조건도 조선인의 대량 이주를 촉발시켰다. 1931년 3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조선인 수는 1940년 목단강시 4만여 명, 영안현 5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 1940년 3월 6일 『만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영안현 동경성의 조선인은 5,524명에 달했고, 근처에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조선인 마을이 여럿 생겨났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일제는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군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량 집단 이민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때 재단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 중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① 안전농촌 방식. 안전농촌이란 조선총독부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동아권업공사에 보조금을 주어 건설한 농촌 조직을 말한다. 조선총독부 파견원의 지도하에 마을에서 자위단을 조직하여 치안 경비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② 집단 부락 방식. 일제는 1933년 동척 간도 출장소에 자금을 내게 하여 간도에 집단 부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마을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 위에 철망을 쳤으며, 밖에는 구덩이를 팠다. 성에는 2개 또는 4개의 문이 있었다. 조선인

14) 일제 시기 목단강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강수봉, 앞의 글에 설명이 자세하다.

농민과 항일부대의 연계 차단에 효과가 있어 1936년 만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1939년에는 전 만주에 13,451개의 집단 부락이 건설되었다.¹⁵⁾

일제는 5년 동안(1932~1936) 토지국, 토지조사위원회, 지적정리국 등의 기구를 만들어 만주 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약탈했다. 안전농촌과 집단부락을 통해 재만 기주 조선인에 대한 통제가 일단락되자, 1937년 이후 신규 집단 계획 이민을 실시했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인 이민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재만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가능했다. 일제는 산재한 재만 조선인을 지정된 지구에 집중시킨다는 구실로 집단부락용지, 일본이민 이주 예정지 등의 이름을 달아 반강제로 땅을 빼앗았다. 애써 일구어놓은 부락이 일본인 이민 후보지로 지정되면 만척이 따로 마련한 부락으로 옮겨가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다시 개간하여 생계를 찾거나, 그곳에 남아 일본개척민의 소작농이 되었다.¹⁶⁾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도 불신과 반목이 조성되었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발하고 저항하면서도 일제에 의한 중국 침략에 부역하고 협력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녔다. 이에 따라 재만 조선인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선도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같은 처지에서 공동으로 저항하는 동일자 의식, 다른 하나는 조선인을 일제의 아류로 간주하여 배척하는 정서였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민족을 초월한 항일연군이 결성되어 공동의 투쟁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에선 민족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조선인 중에는 일제에 의한 중국인 수탈과 착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거나 본의 아니게 일제의 편으로 가름되는

15) 유원숙,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대사학』 1995.

16) 영안 지역에서도 그러한 수탈이 자행되었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4, 결전』(민족출판사, 1991)에 실린, 『일본이민단의 토지략탈』(석청송, 24~26쪽); 『망국노의 설움』(황현구, 40~46쪽)이 그에 대한 증언이다.

자도 많았는데 이것이 갈등을 심화시켰다.¹⁷⁾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지 하루만인 8월 16일 소련군이 전 목단강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곳은 행정과 치안의 공백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9월 목단강시의 고려경찰대를 시작으로 11월에 이르기까지 영안현과 동경성에 조선 청년들로 구성된 무장 치안대가 잇달아 창설되었다. 당시 조선인 장병은 3,200여 명으로 목단강구 전체 공산군의 40%를 차지했다. 조선인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무장 자위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사회에 이미 뿌리 깊은 조선인 배척 정서가 존재했던 데다가, 국민당 지지 군대는 이러한 민족 갈등을 더욱 부추겨 중국인들의 결속을 꺾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주국 시기 일제 협력자나 지주들은 진작 남한이나 간도로 이주한 터였다. 갈수단이 없거나 가뭄야 생활 방도가 없는 사람들만 목단강에 남았다. 한편 조선인 사회에서도 국민당 편에 선 세력이 있어,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선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으니,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복잡한 중층성을 띠고 있었다.¹⁸⁾

소설 속에 묘사된 바, 1945,6년에 벌어진 마련하 역전 전투와 그 전후의 큰 사건들은 모두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¹⁹⁾ 또 송위민이 장소원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바, 1946년 5월 東安縣城(지금의 密山)에서 謝文東 무리가 자행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사실과 부합한다.²⁰⁾ 조선인과 한

17) 염인호, 『중국내전기 만주 지방 조선의용군 부대의 활동(1945.8~1946.8)-목단강 구의 초기 조선인 부대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6, 2003).

18) 여기에 대해서는 량재화, 『목단강군구의 조선족 관병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5, 결전』 (1992, 22~25쪽) 및 강수봉의 앞의 글 참조.

19) 이 전투의 실상과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을권의 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 『黑龍江朝鮮民族』(徐基述·徐明勛 주편,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8)에도 ‘馬蓮河격전’과 ‘圍剿鹿道匪巢’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20)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맏고군·피금련·최성림, 『7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피비린

족 사이의 민족 갈등과 조선인 내부의 반목도 소설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5. 인물의 전형과 구도

『포효하는 목단강』에는 역사인물과 가공인물, 조선족과 한족, 항일세력과 친일세력이 짝을 맞춘 듯 나란히 등장한다. 이처럼 단순명료한 대립항들이 교차하는 동안, 누군가는 민족 갈등을 악용해 계급 모순을 부추기고, 누군가는 확고한 계급의식으로 민족 갈등을 끌어안기도 한다. 소설의 무대가 현실공간인데다 사건 대부분이 실제 사실의 반영이고 보면, 역사인물과 가공인물의 혼재는 이상할 게 없다. 양자가 뒤섞인 곳에서 역사인물은 상상력을 입고, 가공인물에서는 역사적 질감이 생겨난다. 이때 실존인물은 대개 馬喜山(1893~1950),²¹⁾ 謝文東(1887~1946),²²⁾ 周保中(1902~1964),²³⁾

력사, 조선인들의 피로 물들인 밀산 '5.26' 참사」(『흑룡강신문』 2016년 4월 18일, 19일)에 자세하다.

- 21) 마희산의 본명은 馬雲鵬으로 영안현 마하촌에서 태어났다. 1931년부터 사도하자 일원에서 약탈과 납치를 일삼다가 잠시 항일구국군에 편성되어 연장을 맡은 바 있으나, 곧 일본군에 투항하고 항일부대 토벌에 나선다. 이후 1933년에는 부대를 빠져나와 마련하, 왕청 일대에서 다시 토비가 되었고,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를 받아 재차 투항한다. 마희산의 이러한 전력은 소설 속 그것과 일치한다. 이후 국민당 당부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아 녹도, 동경성 등에서 활동한 사실들 또한 낱낱이 작품 안에 구체화되었다.
- 22) 본명은 謝文翰이고 만주족이다. 동북 지역의 토비 출신으로 동북항일연군의 간부가 되었으나 일본에 투항, 일본이 항복한 뒤에는 국민정부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1946년 중공군에 패한 뒤 처형되었다.
- 23) 본명은 奚李元, 운남성 大理縣 출신이다. 동북항일연군의 창시자이자 동북지구 항일 유격전쟁의 주요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운남성 인민정부의 부주석 등을 지냈다.

鄒世環(1915~1946), 鄭雲峰, 리모칭(李茂慶) 같은 한족이고, 천세준, 리용호, 두철 등의 조선족은 주로 허구의 인물인데, 두 민족 사이의 관계는 실로 복잡 미묘하다. 조선족이나 한족 모두가 그토록 일제를 증오했으면서도 일제가 패망하자 일부는 서로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일부는 자신들의 신념을 수호하고자 민족적 경계를 초월한 채 강력히 연대한다. 그리고 작품에 이름을 내지 못한 기층민들의 마을에는 뿌리 다른 이웃이 있을 뿐, 적도 동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구인물(모든 조선인 + 장쇼원, 송위민, 류소천, 오완린 등 일부 한족)의
예술적 형상성
+
실존인물(대부분의 한족, 이와노브 등의 러시아 인물)의 역사적 사실성

작품 안에서 강찬혁은 민족 모순을 계급 동일성 속에 무화시키려는 세력을, 마희산은 민족모순을 조장해 계급 모순을 은폐하려는 세력을 각각 대표한다. 항일연군 지하교통원 출신의 강찬혁은 신분을 숨긴 채 소작농으로 살다가, 해방 직후 조선민민회의 세력 확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대동맹과 자치대를 결성했다. 반면 마희산은 변절의 화신이다. 토비 출신인 그는 구국군 연장이 됐다가 이내 투항해 경찰대 중대장질을 하고, 다시 토비의 길에 올랐다가 일본 수비대에 거듭 투항한 뒤 항일연군 토벌에 나섰다. 이후 강찬혁은 조선민민회의 대중 집회 현장에 담대하게 뛰어들어 미국식 자유주의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마련하 전투가 발발하자 소련홍군에 지원을 요청해 전세를 뒤바꿔 놓는가 하면,²⁴⁾ 마부의 습격을 단번에 제압

24) 정을권의 앞선 증언에 따르면, 1946년 1월 23일 동경성에서는 姜鳳煥을 영안에 파견해 홍군에 지원을 요청했다. 윤일산은 항일연군 5군 지하교통원 출신의 노혁명이 강봉환을 『어둠을 뚫고』에서 살려냈다고 했다. 둘은 같은 인물로 보인다.

한 뒤 심문을 가해 적정을 간파한다. 그는 또 지식인 천세준의 동참, 소년 두철의 성장, 한족 장쇼원의 각성을 주도한다. 요컨대 강찬혁은 대중선동, 대외협력, 무력투쟁, 사상공작 등 모든 방면에서 진영 최고의 지도자이자 어른이다. 마희산은 제1여 소장여장으로 임명받고 녹도에 주둔한 뒤 공세에 나섰다. 마련하역전 마을을 점령한 그는 한족을 보호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조선 사람을 약탈해서 물자를 확보하더니, 전승에 욕심이 생긴 다음부터는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이 사는 마련하촌 안에까지 포격을 명한다. 2차 전투에 대패한 뒤로도 조선인 학살을 멈추지 않았고, 조선 부대로 하여금 한족 군중을 도살케 하는 흉계를 꾸미기도 한다. 일제의 악랄한 이간책을 학습한 것이다.

[구도 1] 강찬혁 · 추세환(항일투쟁, 계급의식으로 민족모순 포용) /
마희산 · 리호(친일부역, 민족모순 악용 사육 추구)

[구도 2] 천세준 · 박강 · 윤철우(개인을 희생한 집단) /
오완린 · 백호남 · 박도깨비(집단에 기생하는 개인)

[구도 3] 리용호(항일, 한족 혐오 → 계급동일성 획득) /
장쇼원 · 송위민(배일, 조선인 혐오 → 계급동일성 획득)

강찬혁의 주변에는 천세준, 추세환 등이 모여들었다. 천세준은 경성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나 우국지사를 죄수로 만드는 법률에 회의를 느껴 낙향한 지식인이다. 그는 강찬혁을 만나 노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하고, 강서마을과 향수마을에서 조직 동원 사업에 앞장섰다. 전투의 한복판에서 마희산을 찾아가 담판을 벌이려는가 하면, 2차 전투가 대승으로 끝난 뒤에는 노쇠한 강찬혁을 만나 현안을 의논하고 그의 상실감을

달래기도 한다.

추세환 정위는 관내의 상급부대로부터 강찬혁을 찾아와 국세 전반을 설명하고, 이후 시종일관 조선족 독립영을 지휘한다. 한족인 추세환이 지휘하고 조선족 병사들이 지휘를 받지만, 그들 사이에는 민족 구분이나 계급 차별이 없다. 처음부터 한 민족 동지였던 것처럼 생사를 함께하는 그들의 병영은 조선족과 한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이상사회이다.

마희산의 변형 또는 수하로 백호남, 리호, 오완린이 있다. 민족주의자를 사처하는 백호남은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갓은 추태를 부리고 풀려난 인물이다. 체포 사실을 이력 삼아 조선인민회 회장 자리를 차지한 그는 민회를 소집해 한족과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면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오완린 세력에 맞서도록 선동해 조만갈등을 부추긴다.

백호남이 그 나름으로는 선을 굽고 한족을 혐오한 인물이라면, 헌병부대 특무 출신의 리호는 오로지 일신의 안녕과 영광만을 쫓는 민족 배반자의 전형이다. 일왕이 투항하자 그는 가족부터 남조선으로 떠나보냈고, 토지에 미련이 남아 형세를 살피던 중 민주대동맹의 세력화를 직감하고는 도주해 마희산의 편에 섰다. 마희산이 민족 사이의 갈등, 반목, 증오를 조장하는데 주구가 되어 앞장선 리호는, 결국 싼콰이즈 마을을 둘러싼 조선족 부대와외의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 죽는다.

오완린은 민족적으로는 백호남과 대척점에 섰으면서도 본질은 그와 빼닮은 인물이다. 일제 치하 말단 경찰이었던 오완린은 일제 패망 후 그대로 동경성 치안대 대장이 됐다. 그는 조선 사람의 토지와 재산을 약탈하는 한편, 치안대를 집결시켜 조선인 구역을 봉쇄하고 조선 사람이 중국 사람을 몰살하려 한다는 흑색선전을 일삼는다. 마희산 수하에 들어가 마련하역전 전투에 참가해서도 자신의 목숨만 구걸하는 비겁함을 드러냈고, 조선 사람을 약탈하고 겁탈했으며, 암살대를 이끌고 마련하촌에 잠입한 상황에서도

과부를 탐한 인간 말종이다.

두철과 영수는 진영의 성장과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상징성은 16세 소년 두철이 협기를 발휘해 민회 현장의 강찬혁을 지켜내는 모습에서 예고되었다. 나아가 조 교도원에게 한족말을 배우려 드는 적극성, 장쇼원의 거짓 투항 앞에서도 민족 갈등에 얽매이지 않는 성숙한 면모, 눈 속을 파고들어 따황디를 돌파하는 영웅적 기상, 가족을 잃은 조선족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온정, 7인의 민병대를 이끌고 12명의 토비를 생포한 두철의 지략과 용기 등에 강찬혁의 모습이 겹쳐 나타난다. 현장이 주관하는 구정부 준비회의가 강찬혁에게 구장을 제안하지만 강찬혁은 두철을 추천하고, 결국 두철이 구장을 맡는다.

손가락을 끊어가며 일제의 징용을 면했던 영수는 조선족 독립영 탄생 소식을 듣고 자원해 들어간다. 그는 마련하춘 전투에서만 해도 자기 목숨만을 지키느라 임무에 소홀했지만, 박항용 청년의 장렬한 죽음과 부상병 가족까지 동참하는 양식지원운동을 목격한 뒤로는 앞서의 과오를 크게 뉘우친다. 또한 손이 불편한 자신에게 연장이 전투 임무 열외를 지시하자, 집단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한다.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영수는 민병 교육을 담당하고, 혼사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에게 혁명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의젓한 답을 내놓는다. 두철이 타고난 자질에 지도부의 교육을 더해 급속한 성장을 보았다면, 영수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투철한 성장을 겪은 쪽이다.

앞에 제시한 인물들이 다소 답답한 전형성에 묶여 있다면, 리용호와 장쇼원의 전향은 작품 전체에 파란을 일으키고 주제를 강화한다. 조선인 리용호와 한족 장쇼원은 당초 격렬한 배일 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 민족에 대한 지독한 혐오를 품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을 펼쳐낸 끝에, 결국 누구보다도 강력

한 계급 동일성으로 무장한다.

리용호는 고향 녹도에서 후털보 일당의 만행을 목격한 뒤로, 한족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품은 채 동경성 조선족 독립영에 들어가 기관총 사수를 맡는다. 처음 그는 ‘포로를 학대하지 말라’는 규율에 거칠게 분노하고, 거짓 투항한 장쇼원을 없애 치워야 한다며 날뛰다가 추세환 정위로부터 질책을 받는다. 마련하촌 마을로부터 퇴각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발적으로 용서를 빌지만, 박강과 함께 제압한 상대 병사를 난자하는 등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노출한다. 이후로도 마련하역전 마을의 참상에 치를 떨며 한족 백성을 상해하려 하고, 녹도 마을을 둘러싼 2차 전투에서 투항하는 적에게 총을 쏘아 낭패를 보는 등 실수와 반성, 다짐을 반복한다. 리용호는 자신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조선인 리호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포로가 된 장쇼원의 내력을 듣고 났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민족적 편견과 계급적 동질성에 대한 신성한 자각을 경험한다.

장쇼원은 탈해보 사건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에 대해 원한을 품고 복수를 맹세한다. 그러나 리호를 중용하는 마희산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조선족과 한족이 민족은 달라도 한 계급 형제임’을 강조하는 강찬혁의 연설에 흔들림을 느낀다. 동경성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간파하고도 무장해제만을 시킨 채 마희산과 국민당의 흥계를 일깨우며 놓아 보내자, 이때부터 장쇼원의 갈등이 고조된다. 마을을 점령하고 약탈과 겁탈을 자행하는 오완린과 그를 중용하고 방조하는 마희산에 대해 격한 거부감을 느끼고, 공산 비적이라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을 죽이면서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후 장쇼원은 오완린 수하의 조선인 약탈을 가로막고, 술상을 대접하는 조선인 영감에게 호감을 갖는다. 강찬혁이 장쇼원을 입원시켜 치료하고 류소천이 찾아와 국민당의 실체를 폭로하자, 이로써 장쇼원에게는

자기 삶과 사상에 대한 후회와 반성, 일대 각성이 일어난다,

리용호와 장소원은 민족이 다를 뿐, 작품 안에서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리용호가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본인과 주변을 괴롭혔다면 장소원은 계단을 밟듯 한 걸음씩 다음 단계로 올라선 점이 다르지만, 마침내 서로의 존재와 내력과 협조가 서로를 탈각시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아울러 그토록 철저히 민족모순에 사로잡혀 있던 두 사람의 일대 전향은, 그 후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리용호, 더 많은 장소원이 나와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임을 예감케 한다.

6. 서사공간의 지리 정황

『포효하는 목단강』의 내용은 역사 사실에 토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서사 현장은 모두 실재하는 지리공간이다. 지리공간의 사실성은 인물과 사건에 불가피하게 허구가 개입하는 것과 다른 특징이다. 서사지리에 대한 탐색은,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 허구의 토대인 역사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소설 속 동경성 일대의 마을들은, 이를 테면 『춘향전』의 남원 광한루나 『무정』의 안국동 거리와 같은 곳인 셈이다. 그곳은 또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노량이나 1909년 10월 26일의 하얼빈역과 다르지 않다. 이 지리공간을 무진과 삼포, 또는 남악 형산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설에 제시된 지명은 40여 곳이다. 작품은 순 한글로만 씌어졌는데, 지명은 대개 한자어의 한국어 독음으로 처리되어 있고, 일부만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였다. 그 사이 지명이 바뀌거나 사라져 지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곳이 일부 있지만, 주요 공간 - 조선인이 활약하거나 피해를 입는 -

은 대체로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어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 지리 공간은 그 비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건 전개와 먼 배경으로만 제시되거나, 외부 정황 또는 소식 정도로만 처리되는 대도시가 있다. 역사 사건으로도, 지리 공간으로도 작품 서사의 먼 외연을 형성하며, 모두 지금의 흑룡강성과 길림성에 속한다.

할빈(哈爾濱), 목단강시(牡丹江市), 계관산(鷄冠山, 鷄西市), 동안현성(東安縣城, 密山市), 영안현(寧安縣, 牡丹江市 寧安市) (이상 흑룡강성), 간도성(間島省, 延邊 일대), 둔화(敦化) (이상 길림성) 등.

둘째, 마희산(馬喜山) 부대가 거점으로 삼았거나, 이후 비적으로 활동하면서 들렀던 곳, 아니면 전투 과정에서 잠깐씩 등장하는 한족 부락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소루한 편이다. 소설 속 지명에 대응하는 현재의 행정 지명과 그 서사의 맥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설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서사의 맥락
사도하자	寧安市 馬河鄉 四道村	46년 2월 15일 전투현장
오봉루촌	寧安市 鏡泊湖 五峰樓村	늑도 전투 진군로
위자거우	寧安市 馬河鄉 小圍子溝	마련하 전투 현장
똥거우	寧安市 渤海鎮 東溝村	오완린이 살던 곳
따황디	寧安市 東京城鎮 大荒地村	동경성과 마련하 사이(마련하 전투, 동경성 전투의 피아양군 이동로)
토성자	寧安市 東京城鎮 土城子村	
이민단부락	移民團部落? (따황디 부근)	
위만병영	偽滿兵營? (따황디 부근)	
노송령	老松嶺,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경계	마희산(馬喜山), 리모청(李茂慶) 등이 이끄는 국민당군 주둔지, 또는 지배 구역
노묘촌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汪清縣 春陽鎮 老廟村	
춘양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汪清縣 春陽鎮	
낙타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汪清縣 春陽鎮 駱駝山村	

천교령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汪清縣 天橋嶺鎮	녹도 전투에서 패한 마희산 군대가 퇴각하며 저항하던 곳 (목단강 북쪽)
뉴웬거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汪清縣 天橋嶺鎮 牛圈溝	
완거우	흑룡강성 寧安市 鏡泊湖 溝溝村?	
싸란진	沙蘭鎮, 寧安市 沙蘭鎮	
싼콰이즈	三塊子, 寧安市 沙蘭鎮 三塊石村	
리수거우	梨樹溝, 海林市 長汀鎮 梨樹溝	
오가자촌	五家子村?	

셋째, 서사의 중심 현장으로, 주요 인물들의 내력과 생활상은 물론 해방 후 혼란상과 극복 과정을 보여주며,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대부분 조선인 집거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그 특성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발해진을 중심으로 반경 100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있다. 점으로 기준을 잡으면 발해성이 그 중심이고, 선으로는 ① 목단강 물줄기와 ② 도문(圖門) - 목단강(牧丹江) 철로가 축선이 된다. 발해성 · 철로 · 목단강은, 각각 한국사 · 조선인 이주 · 영안을 표상하는 지리공간이다. 윤일산은 구술을 토대로 이들 지역을 답사하고, 마을의 구성과 주변의 지리 형세 및 도로를 상세하게 그려, 서사 구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

소설 지명	현재의 행정 지명	서사의 맥락
동경성	寧安市 渤海鎮	서사의 중추이자 상징적인 장소(경찰서, 헌병대, 비행장)
평두산	平頂山 (동경성역 동쪽)	
목단강	牧丹江	
강서촌	寧安市 渤海鎮 江西村	목단강 연안의 마을, 강서촌은 천세준 · 박강 등 주요 인물의 고향
향수촌	寧安市 渤海鎮 響水村	
삼릉촌	寧安市 三陵鄉 三星村	
녹도촌	寧安市 馬河鄉 鹿道村	철로 연변의 마을, 마련하 전투 · 조선인 피학대 현장, 녹도는 리용호의 고향
마련하역전 마을	寧安市 馬河鄉 馬蓮河村	

마하촌	寧安市 馬河鄉 馬河村	
밀강대촌	海林市 新安朝鮮族鄉 密江村	늑도전투에서 패한 마련하 군대에게 약탈당한 마을
남강촌	南江村? (발해진 북쪽 40리 지점)	두철이 토비 12명을 생포한 곳
아마허즈	寧安市 臥龍朝鮮族鄉 愛林村, 紅林村 (蛤蟆河子, 下馬河子)	강찬혁이 류소천을 달긴 곳, 마희산 부대가 공산군 24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곳
마창	寧安市 臥龍朝鮮族鄉 英山村 (馬廠屯)	무장 자치군이 제일 먼저 창설된 곳

이상의 마을들은 일찍부터 조선인들이 정착하여 집거한 곳이다. 1980년 대 중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발해진 상경촌에는 1,496명, 향수촌에는 892명, 강서촌에는 1,459명, 아마허즈(紅林村)에는 289명, 영산촌에는 1,220명, 마련하촌에는 205명, 삼성촌에는 488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²⁵⁾ 이중 강서, 향수, 영산촌은 지금까지도 100% 가까이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마을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허즈와 마창의 소설 속 비중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해방 후 투항한 일본군의 퇴각로이자 소련 홍군의 진입로가 지났으며, 조선족 무장 자치군이 가장 먼저 조직된 곳으로, 역사적 의의가 높은 지역이다. 윤일산이 한때 살았던 근로촌과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이중에서 서사의 중심 장소인 동경성을 중심으로 당시의 지리정황을 살펴보자. 동경성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마련하촌을 떠난 강찬혁의 눈앞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동경성 거리에 만세 인파가 몰리고, 이들이 일본 경찰서로 몰려가는데, 강찬혁은 광분에 휩싸인 일본인 경찰서장을 사살한다.²⁶⁾ 한때 조선인 민회 세력이 판을 치고 수하의 무장 자위대가 백색공

25) 후룡강성민족사무위원회판공실 편, 『黑龍江省民族工作手冊』, 후룡성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7.

26) 소설 초반에 일본 경찰서와 헌병대, 그리고 비행장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세 곳의 위치는 문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발해진에 거주하는 金斗福(88세) 옹이 확인 해주었다. 그는 길림성 和龍 출신으로 3세 때 발해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으며, 일제 말기에는 비행장 공사에 참여하여 당시 사정을 소상하게

포를 퍼뜨리고, 강찬혁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독립영이 정식으로 탄생해 목단강 군구의 4團(團) 2명으로 편입되고, 500명의 조선족 청년들이 모여 중국 공산당의 '3대 규율 8항 강령'을 학습하며 훈련하고, 마련하촌 전투 직후 강찬혁 등의 요청으로 소련홍군의 기계화 부대가 진입하여 마희산 부대를 물리친 곳이 모두 동경성이다. 뿐만 아니라 세 불리를 직감한 리호가 야반도주하고, 장쇼원이 거짓으로 투항하였으며, 노팔로군 지도자 鄒世環이 파견되어 와 활약하고 죽은 곳도 모두 동경성이다.

소설 속 동경성은 현재의 행정구역 동경성진(동경성기차역 일대)이 아니라, 약 16km에 이르는 발해 고성 안에 둘러싸인 마을을 가리킨다. 이를 전제해야 토성, 남대문, 소학교, 조선족 거리 운운하는 묘사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발해 고성의 바깥 토벽은 지금도 그 형태가 남아있다. 소설에서 지금의 동경성진은 동경성 역전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었다. 토성의 남대문 자리 밖에는 鏡泊湖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는데, 소설에서는 일본군이 이 길을 이용하여 패주한다. 또 남대문 자리 밖에는 따황디촌과 토성자촌이 있고, 두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가면 철로를 따라 마하촌, 마련하촌, 녹도촌이 잇달아 나온다. 녹도를 지나면 마희산 부대의 근거지였던 春陽 일대이다. 동경성과 마하촌 사이는 모두 평야이다. 현장의 지리 정황을 확인하면 왜 마희산 부대가 따황디촌과 토성자촌을 점령하고 마련하촌을 공격했는지, 마하촌을 빠져나온 조선인 부대가 따황디촌 통과에 왜 애를 먹었는지 등을 환히 알 수 있다.

동경성에서 강찬혁은 말과리(馬爬犁, 말이 끄는 썰매)를 빌려 타고 寧安

알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서 자리는 발해진 大安街에 있었고, 소련 홍군사령부가 들어선 일본군 헌병대는 동경성 기차역 앞 客運站 오른쪽(서 있는 방향) 건물 자리에 있었으며, 비행장은 그 북쪽 맞은편이었다고 한다. 세 장소의 위치는 초반 서사를 이해 감상하는 데 매우 중요하여 특기한다. 김두복 응을 소개해준 인근의 鄭永山(78세) 선생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에도 참여했었다고 한다.

위는 취재노트에 남은 당시 동경성 일대의 약도이다. 그림의 왼쪽이 동경성 역전(지금의 동경성참 부근) 일대이다. 조선족 마을과 한족 마을을 나눠 표시했고, 偽滿國 시대 헌병대 자리에 해방 후 소련홍군사령부가 들어섰음을 적었다. 오른쪽은 동경성(지금의 발해진) 일대이다. 동남쪽의 조선인 집거 구역과 서북쪽의 한족 집거 구역을 나누었고, 남쪽에 토비 주둔 따화디(大荒地) 마을과 아군 퇴각로를 표시했다. 조선족 마을과 한족 마을의 구도는 김두복 옹의 증언과 합치한다. 남문 안쪽에 ‘渤海學校(團部)’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바로 조선인으로 구성된 14탄부가 있던 곳이란 뜻이다. 지금의 발해진조선족소학교 자리를 가리킨다. 중심가를 중심으로 서북쪽에 ‘上京學校(漢族部隊兵營)’로 표기된 곳이 지금의 발해진소학교이다.

동경성 서쪽에 목단강이 흐르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왼쪽의 철로 동쪽에 평두산이 있다. 동경성이 작게는 1945,6년 이 일대 조선인의 삶, 크게는 근대 중국 동북에 정착한 조선인의 역사와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의 장소라면, 목단강과 평두산은 그들의 분투와 희망을 표상하는 자연 공간이다. 목단강은 동경성의 서쪽에서 북류하는 물줄기이고, 평두산은 그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이다. 평두산은 현재 평정산(平頂山)으로 불리는데, 모두 그 정상이 평평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경성 조선 사람들의 삶은 평두산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흑독한 한파를 뚫고 흐르는 목단강 물 사이에서 펼쳐진다.

이제는 해가 평두산 위에서 두어 발이나 올라뒀다. 집집마다에서는 군불들을 때는지 연통에서 연기가 고요히 피어오를 뿐이었다.(권 1, 182쪽)

한겨울이건만 목단강의 세찬 여울은 얼어 붙지 않았다. 햇볕에 번들거리는 얼음 밑으로 솟아오른 검푸른 강물은 소리치며 여울을 흘러 지나 다시 얼음 밑으로 자취를 감추곤 했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은 한쪽에서는

애들이 얼음 지치기에 여념이 없다.(권 1, 299쪽)

위는 위장 투항한 장쇼윈이 동경성에서 하루를 묵은 이튿날 이야기의 출발 대목이다. 장쇼윈은 발해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강렬한 조선인 혐오에 휩싸인 인물인데, 투항 후 강찬혁의 인품과 계급 형제를 내세우는 연설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평두산 위로 떠오르는 해는 모종의 낙관적인 미래를 암시한다. 아래는 마련하 전투가 끝난 뒤,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정체성과 계급동일성이 합치되어가는 즈음 한겨울 강서촌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한겨울에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맹추위는 역사의 시련을, 그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고 흐르는 세찬 여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의 투쟁을 암시한다. 그것이 바로 ‘포효하는 목단강’인 셈이다. 역사의 격랑은 이들을 한반도에서 먼 옛날 조상이 떠나온 땅으로 실어갔고, 거둬 닦쳐오는 한파를 견디며 세월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파고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한다.



『포효하는 목단강』의 서사지도. 대부분의 사건들이 동경성(발해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7. 결어

근대 역사의 격랑 속에서 조선인들은 옛 발해의 땅으로 귀환하여 정착했다. 자발적 선택이나 능동적 실천은 아니었지만, 그럴 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반도와 그 땅이 다시 이어진 것이다. 이후 분단으로 인해 그 땅은 다시 격절되었다. 1930, 40년대 흑룡강성 조선인의 대다수는 공산당을 지지했고, 이들은 해방 이후 이른바 혁명전쟁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지도자의 일부는 북한으로 갔고, 일부는 그 땅에 남았다. 남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되고 냉전이 이어지면서, 그곳은 심리적으로 더 먼 곳이 되고 말았다.

본고는 1945, 6년 동경성 일대의 서사지리를 조명하여 그곳이 한국문학의 소중한 장소가 될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이다. 본 논의에 앞서 세 가지를 예비 검토했다. 작가 윤일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데, 새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대략의 행적과 작품 활동을 밝혀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효하는 목단강』에 대한 기왕의 논의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 한때 조선족 작가에 대한 관심의 고조 속에서 이 소설도 간행되었지만, 이것이 학술의 차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일산의 작품들이 발굴되고 새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설 속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역사 배경과 당지의 정황을 제시하였다.

인물들의 성격과 갈등은 크게 네 개의 유형과 구도로 파악하였다. ① 조선인과 한족으로 나뉘는 구도이다. 여기서 위만주국 시기 일본에 대한 태도(항일/친일)와 이념 지향(공산당/국민당)에 따라 민족 내 유형이 분화되고, 연대와 대결의 구도가 복잡해진다. ② ‘강찬혁 · 천세준 · 추세환(한

죽) / 마희산(한족) · 오완린(한족) · 이호'는 극단의 선명성을 지닌 대결구도이다. 전자는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공산혁명을 지향하고, 후자는 친일부역배 출신으로 민족모순을 악용하여 사육을 추구한다. 이들의 성격은 시종 바뀌지 않는다. ③ 두철, 남영수 등은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공산혁명가로 성장하는 인물이다. ④ 리용호와 장쇼원(한족)은 변화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상대 민족을 극단으로 혐오하였는데, 경험과 각성을 통해 계급동일성 속에 민족모순을 무화시킨다. 인물들은 대개 실존 인물이거나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였으며, 그 성격은 전형성이 강하다.

서사공간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사건 전개에 먼 배경이 되는 도시들, ② 마희산 부대가 주둔하거나 활동했던 한족 마을들, ③ 주요 사건이 펼쳐지고 전개되는 조선인 집거촌들로 소설의 주요 배경이다. 본고에서는 ③에 특히 주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동경성의 지리적 표상성을 따로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목단강과 평두산이 지니는 의미도 간술하였다. 윤일산은 당시 민족 갈등 속에서 조선인들이 겪은 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던 주도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논자는 이중 전자를 밝히고 싶었다. 한겨울 고유 복색 차림으로 전투준비 부역에 내몰리고(1권 169, 170쪽), 잔혹하게 보복 학살된(1권 284쪽) 녹도와 마련하역 전 마을 조선인들의 모습이, 역사의 반영인지 소설적 과장인지 궁금했지만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하여 윤일산 문학의 여러 의의를 밝히는 일은 뒷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윤일산, 「취재노트」, 「구상노트」 (수고본)
 강수봉,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1, 2), 『은하수』, 1985년 제 1기, 2기
 맹고균 · 피금련 · 최성림, 「7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피비린 력사, 조선인들의 피로 물

- 들인 밀산 '5.26' 참사, 『흑룡강신문』 2016년 4월 18일, 19일.
- 商燕鳴, 『牡丹江市城史紀元考』, 『黑龍江史志』, 2006.
- 徐基述·徐明勛 주편, 『黑龍江朝鮮民族』,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8.
- 서령, 『중국 조선족문학의 '중국화' 문제-김학철과 윤일산의 전쟁제재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염인호, 『중국내전기 만주 지방 조선의용군 부대의 활동(1945.8~1946.8)-목단강 지역의 초기 조선인 부대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6, 2003.
- 유원숙, 『1930년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부대사학』 19, 1995.
- 윤혜연, 『청빈한 선비의 영원한 표상』 (윤일산, 『백성의 아들』, 연변대학출판사, 2017)
- 이혜영, 『기억과 재현: 1980년대 중국 조선족 혁명서사 연구-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 2017 통일인문학세계포럼(건국대학교-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공동주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어제와 오늘”, 2017년 10월 20일.
- 중국조선민족역사족적 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8책, 민족출판사, 1991~1999.
- 丁乙權, 『寧安縣朝鮮族人的剿匪戰鬪』 (寧安縣民族事務委員會, 『寧安縣少數民族人物志』, 1987)
- 黃錫惠, 『牡丹江考釋』, 『黑龍江史志』, 1996.
- 흑룡강성민족사무위원회판공실 편, 『黑龍江省民族工作手冊』, 흑룡성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7.

논문투고일 : 2018. 9. 29. 심사완료일 : 2018. 10. 25. 게재확정일 : 2018. 10. 28.

Abstract

Narrative Geography around Dongkyengsung in 1945 and 1946
 — Focused on “Roaring Mokdangang”(Yun Ilsan)

Lee, Seung-su* · Hwang, In-geon**

This study focused on the life of the Koreans and the historic situations in the geographical space around Bohai Zhen, Ninganshi, Heilongjiang Sheng (Dongkyengsung in the fiction) in 1945 and 1946 with the fiction “Roaring Mokdangang” as the text. Prior to the analysis, three subjects were examined; ① records on and the works of Yun Ilsan; ② publication of 『Roaring Mokdangang』 and his research; ③ movement of the Koreans to Mokdangang City in 1930s and historic situation around Dongkyengsung in 1945 and 1946. Sections 5 and 6 are the main body. The personalities of characters and their conflicts were identified in four types and structures. The characters in the fiction were mostly real persons or modelled after real persons, and showed very typical tendencies. The author told that he created this fiction on the basis of the socialist realism. The narrative space was classified largely into three types. The important space was several enclaves of the Koreans where the events started and developed. The title of the fiction includes ‘Mokdangang’. The center of the narration is Dongkyengsung(Bohai Zhen at present). Battles occurred in the villages along the railroad. Mokdangang and Dongkyengsung Railways symbolized the nature and history of the areas(ancient times) and the movement of Koreans(modern times) in this area.

key words Yun Ilsan, Mokdangang(Mokdan river), Dongkyengsung, Pyungdusan(Pyungdu mountain), Malyenha Battle, Nokdo Battle, Gang Chanhyeok

*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Hanyang University, Center for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